

# 전산망 발전방향 및 민간VAN활성화방안 종합세미나 성황



▲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는  
李海旭 체신부 차관

「전산망 발전방향 및 민간VAN 활성화방안 종합세미나」가 李海旭 체신부차관을 비롯한 관련기관 및 업계 임직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구랍 8·9일 양일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첫날에 있는 전산망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주요 전산망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둘째날의 민간VAN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민간VAN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적·기술적 문제의 대처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연일 300여명의 청중이 참석, 정보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관련기사 本文 33面〉



▲ 연일 3백여명의 청중이 사학연금회관 세미나를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전산망 발전방향 및 민간VAN활성화방안 종합세미나.

◀ 주제발표에 앞서 인사하는 具滋斗 회장.

### 협회動靜

## 그룹 VAN 활성화 합동간담회



▲국내 처음으로 열린 그룹 VAN 활성화 합동간담회.

민간 그룹VAN 추진업체 및 관련기관 관계자 합동간담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랍 4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그룹VAN 진출업체들이 국내 그룹VAN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당국에 건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협회가 주최한 것.

이날 간담회에는 金永泰 에스·티·엠 사장을 비롯한 업계관계자들과 李宗淳 체신부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한국전기통신공사·데이터통신의 관련 사업 책임자가 참석했다.

〈관련기사 本文 12面〉

### 정보文化광장

정보화사회에 대한 처국민 홍보·교육장으로 활용될 데이콤 플라자(DACOM PLAZA)가 데이터통신빌딩 1층에 구랍 8일 문을 열었다.

데이콤 플라자는 국민 누구나 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찾아보고, 이를 손쉽게 활용하는 정보통신의 활용 습관을 조성하고, 친근한 생활도구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하는 등 범국민적으로 정보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각 영역에 있

## 정보통신의 홍보·교육장 DACOM PLAZA 개관

어 미래 대응분위기를 확산 파급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콤 플라자는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를 전시한 정보통신전시장, 대국민 컴퓨터 현장실습실 기능의 컴퓨터통신 실습실, 첨단의 시청각 기자재를 갖추고 방문객에 현장감있는 브리핑 장소로 활용될 상황실로 구성되어 있다.

▶ 데이콤 플라자의 정보통신전시장.

